중소벤처기업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6.(목) 조간 < 2026.11.25.(수) 14:00 >

중기부, 한경협과 함께 ‘도약(Jump-up) 기업’ 현장 찾아 중견기업으로 도약 지원 의지 밝혀

- ㈜에이아이티 생산라인 시찰과 함께 도약 프로그램 우수기업 4개사의 신사업 다각화·해외진출 등 스케일업 성과 점검
- 대기업 출신 경영전문가들(전담디렉터)의 현장 밀착 자문에 더해, 졸업 후 사후관리·후속 정책연계로 끊임없는 성장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11월 25일(수), 인천 서구에 위치한 자동차 실내램프 전문기업 ㈜에이아이티(대표 이용호)를 방문해 ‘도약(Jump-up) 프로그램’ 참여기업들의 스케일업 성과를 점검했다. 한경협이 소속 전담디렉터의 자문 성과를 확인하고 참여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중기부, 한경협을 비롯해 우수참여기업 4개사(㈜에이아이티, ㈜에스쓰리알, ㈜에스에스피, 티오에스㈜) 대표 및 전담디렉터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이 신사업·신시장 진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도약을 견인하는 중기부의 대표 스케일업 사업으로, ▲신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서포터’, ▲핵심기술 확보를 돕는 ‘기술서포터’, 그리고 ▲대기업 임원 출신 경영자문단(한경협 수행)이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실행과 안착을 이끄는 ‘전담디렉터’를 연계하는 3축 디렉팅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에이아이티의 스마트공장 기반 자동차용 오버헤드 콘솔램프 등 주요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전담디렉터 지원으로 신사업 다각화, 경영체계 고도화, 해외 신시장 개척을 이룬 4개사의 구체적인 스케일업 성과를 공유받았다.

[우수사례 ❶] ㈜에이아이티, 디렉터 네트워크로 기술 고도화 및 품질 제고

자동차 실내램프 전문기업 ㈜에이아이티(대표 이용호)는 도영수 디렉터(前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전무)의 인적 네트워크와 산학 협력 체계를 활용해 '스마트 화재 감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시험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기존 시스템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웠던 고객사 기준의 색좌표 데이터 문제를 해결해 품질 기준을 충족하고, 거래처 확보에 성공했다. 우수기업 벤치마킹과 전직원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 운영 등을 통해 사무 자동화도 20건 완료했다. 그 결과, 해외 기업의 추가 지분투자 유치를 이뤄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건수는 39%, 매출처 수는 16% 늘었다.

* 스마트 앰비언트 램프 : 차량의 주행 상태, 운전자 설정 및 안전 정보를 실내조명과 연동하여 안정 기능을 제공하는 지능형 조명 시스템

[우수사례 ❷] ㈜에스쓰리알, 신사업 실행체계와 인사관리 시스템 정비

폐자원 재자원화 전문기업 ㈜에스쓰리알(대표 서종현)은 최규민 디렉터(前 현대로템 철도차량제조 전무)와 함께 폐배터리 재활용 신사업 10대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책임자 지정부터 이행 점검까지 실행체계를 갖췄다. 또한, 인사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경영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외부 우수사례 분석과 실무 자문을 거쳐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인사관리규정 및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등 내부 조직 구조를 견고히 했다. 이를 기반으로 경영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우수사례 ❸] ㈜에스에스피, 리스크 관리 체계 정착 및 해외 신시장 개척

반도체 패키징 장비 기업 ㈜에스에스피(대표 주희종)는 박성백 디렉터(前 LG전자 데이터스토리지 상무)와 함께 전·후방 공정 확장 방향과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신사업 전략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일정, 품질, 고객 요구를 통합 점검하는 '신호등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도입해 단계별 실행 관리 체계를 현장에 정착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신성장 반도체 장비의 기반 기술 고도화와 고객 검증을 마쳤으며, 대만·인도 등에 해외 신규 고객사 3곳을 확보해 계약을 추진하는 등 올해 매출 1,000억 원 달성을 전망하고 있다.

[우수사례 ❹] 티오에스㈜, 시장별 진입전략 수립 및 대기업 협력 연계

반도체 공정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수질관리 분야 신사업에 진출한 티오에스㈜(대표 김용규)는 조연구 디렉터(前 삼성카드 영업본부 상무)와 함께 관상수족관, 김·새우 양식 등 시장별 진입 전략과 사업화 우선순위를 정립했다. 또한, 경영자문단 네트워크를 연계해 벤치마킹, 인사·조직 자문, 임직원 인공지능(AI) 교육을 지원받고, 국내 주요 식품 대기업 본사 및 기술원 방문을 주선해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울러, 김 양식장 2년 연속 현장 실증에 성공하며 해남·완도·군산으로 수중 전기화학 제어 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고, 출원·등록 28건 확보와 함께 올해 매출 200억 원을 예상한다.

류진 한경협회장은 “단기간 내에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온 것을 보고 놀랐다”며 “도약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내고 있음을 실감했고, 한경협이 참여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류 회장은 참여기업들에게 “신사업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기업가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며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나 장애를 만나더라도 전담디렉터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담디렉터들에게는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여는 데는 대기업에서 쌓은 여러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며 “참여기업의 신사업이 시장에 완전히 안착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략서포터와 기술서포터가 수립한 청사진이 중소기업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리를 꿰뚫고있는 전담 디렉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원 종료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필요한 정책을 적기 지원받는 한편, 우수 졸업기업은 다음 성장 단계로 연계하여 끊임없는 도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중소기업정책관실 기업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우창훈	(044-204-7480)
		담당자	사무관	김남윤	(044-204-7586)
		담당자	주무관	최호철	(044-204-7487)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책임자	팀 장	김은주	(02-2055-4256)
		담당자	파트장	이민진	(02-2055-4258)